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서 6월 21~23일... 국내외 16개 블루스밴드 공연

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에서 6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페스티벌 역시 1만9,700여명의 방문객과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 업체,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 숙박업체, 관련 기업·단체들의 참여 요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 성공했던 만큼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

스티벌은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음식부스와 관내 호텔 및 기업, 식품업체들의 기업홍보 참여를 확대하고, 밤 10시 축제공연 종료 후 원도심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산업축제로 동반성장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국내외 16개 블루스밴드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과 군산의 맥아를 주원료로 만든 군산 수제맥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 업체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외연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또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고 군산이 아시아

3대 맥주도시로 부상하도록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국의 청도맥주 축제, 일본의 삿포로맥주축제와도 상호교류 및 축제 참여를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군산하면 수제맥주가 연상될 수 있도록 확고한 도시 브랜드 만들기와 농업과 연계한 지역특산 주류 산업화까지 견인하도록 다양한 스토리 발굴과 홍보마케팅에 고심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맥아와 수제맥주 스토리는 지역 농업과 함께 숙박, 관광, 식품 등 관련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좋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세번째를 맞는 페스티벌을 독창적인 로컬컨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아시아의 3대 맥주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단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군산시, 제31회 방재의날 맞이 안전단체·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단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단체로는 자율방재단(단장 박미자)·군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김정수, 여성회장 황기순)·민간예찰단(단장 전승배)·안전보안관(대표 황인주)·안전모니터봉사단(회장 신진경)·자율방범대(회장 장병훈)과 군산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이희봉)가 참석했으며,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가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올해 안전보안관으로 신규 가입한 (주)한진MCS(지점장 장남규)가 처음 회의에 참석,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5월 25일 '방재의날'을 맞아 △2023년 호우대응 사례와 성과 공유 △급년 풍수해(호우·태풍) 대비 종합대책 (5개분야 12대 과제) 안내를 위해 조금 일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호우피해 사례와 함께 단

체들의 활동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올해도 힘을 합쳐 안전을 더 특별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단체와 유관기관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비와 상호간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군산시 역시 참석자들의 풍수해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해 의견을 수렴, 검토 후 군산시의 종합대책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실제로 작년 간담회에서 빗물받이 표시봉의 의견을 접수한 군산시는 즉시 시의 풍수해 종합대책에 반영해 현실화시켰고, 이를 본 참석자들은 빠르고 적극적인 군산시 행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관기 안전건설국장은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올해도 지속적인 협력과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위한 발품행정 분주

정헌율 익산시장, 환경부·농축산부·국토교통부 등 방문... 예산 반영·관심 당부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8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환경부 양우근 수질수생태과장을 만나 화학물질 사고 시 유출수 차단 및 오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신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과의 면담에서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구축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과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에게는 철도 이용객 증가에 맞춰 KTX익산역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의지를 전달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김정훈 기

급사업과장을 만나 농촌지역 청소년의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노인들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설명하며 복권기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이달까지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52회 어버이날 행사 개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8일 월명실 내체육관에서 어르신 700여 명을 모시고 경료효친과 효행 사상을 전하는 뜻깊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52회를 맞이한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군산시가 지원하고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이 주최·주관하여 1부 기념식과 2부 어르신 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효를 실천한 효행자와 노인복지 기여자에게 도지사

표창 2명, 시장표창 4명, 총 6명의 유공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경료 효친합창 및 노인복지 향상을 기여한 공을 기렸다.

2부 행사인 어르신 콘서트에는 빅맨 싱어즈, 플루티스트 나리, 가수 진혜심이 출연,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존중받길 바라며, 경료효



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며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예비 청년농업인 유치 발벗고 나서

익산시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예비 청년농업인 유치에 나섰다.

시는 8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익산에 정착한 졸업생 선배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영농정착 지역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민희수 청년시장과 청년후계농 담당자가 익산시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졸업 후 용인면에서 수박

을 재배하는 최순용 씨와 망성면에서 벼 등을 재배하는 이지훈 씨의 영농정착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체험 농장인 삼기면 우리들의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졸업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졸업생인 김태훈 대표의 월화수목공예마포 농장을 방문해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추 등 업체소 스마트팜인 금마면 구름농장(대표 김상훈)을 견학하며 열띤 질문을 주고 받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